

■ 박-문 양자구도 속 요동치는 지역판세

호남권·PK ‘쏠림’ 충청·수도권 ‘박빙’

18대 대선이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의 양자구도로 재편되면서 각 지역별 판세가 요동치고 있다. 이에 따라, 양 후보 진영에서는 조금이라도 유리한 판세를 구축하기 위해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수도권=안 후보 사퇴 이전까지만 해도 수도권 민심은 야권 후보가 7~10%포인트 정도 앞섰지만 상황은 달라지고 있다.

동아일보가 지난 24일 리서치센터서치(R&R)에 의뢰해 이뤄진 여론조사에서 박 후보는 서울에서 43.6%의 지지율을 문 후보를 0.6%포인트, 인천·경기에서 2.9%포인트 각각 앞선 것으로 집계됐다.

SBS가 TNS코리아에 의뢰해 실시한 조사에서도 박 후보의 수도권 지지율은 43.0%, 문 후보 39.0%로 조사됐다. 또한 조선일보와 미디어리서치의 24~25일 조사에서는 여전히 문 후보의 수도권 지지율이 박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율 격차는 1.7%포인트로 좁혀졌다.

이는 안 후보의 수도권 지지율 중 상당수가 문 후보 지지로 선회하기보다는 부동층으로 돌아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충청권=박 후보가 상승세를 탄 수도권과 달리 충청권에서는 문 후보의 상승세가 눈에 띈다. 안 후보 사퇴 직전 한국갤럽이 실시한 박 후보와 문 후보의 양자대결에서 박 후보의 충청권 지지율은 55%, 문 후보의 지지율은 39%였다.

하지만 야권 단일화가 이뤄진 후, 박 후보와 문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좁혀졌다. 동아일보와 R&R 조사에

서 박 후보는 45.0%, 문 후보는 44.6%를 기록했고, 조선일보와 미디어리서치의 여론조사에서도 박 후보는 44.7%, 문 후보는 40.8%로 3.9%포인트 차이에 불과했다.

박 후보가 그동안 충청권에 영향력 있는 이회창 전 자유선진당 대표의 지지 선언을 이끌어내는 등 '중원 공략'에 집중했으나 그 효과는 현재까지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부산·경남=이번 대선에서의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PK에서는 안 후보 사퇴 이후 '박근혜 현상 유지, 문재인 하락'의 흐름이 전개되고 있다.

박 후보는 예전 여론조사와 마찬가지로

50%대 초반의 지지율을 유지한 반면, 한때 PK에서 40% 안팎의 지지세를 보던 문 후보는 '단일화 효과'에도 불구하고 30% 안팎으로 내려앉았다.

SBS와 TNS코리아의 여론조사 결과 박 후보는 51.9%, 문 후보는 29.9%의 지지율을 각각 기록했고, 조선일보와 미디어리서치의 조사에서도 박 후보 50.4%, 문 후보 32.4%로 집계됐다.

이는 문 후보로 단일화가 이뤄지면서 '부산 후보'보다 '민주당 후보'가 더욱 부각됐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PK 부동층이 전체 유권자의

15%를 상회하고 있다는 점에서 안 전 후보의 행보 등에 따라 판세는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호남=후보 단일화가 이뤄짐에 따라 안철수 지지층이 대거 문 후보 지지로 연결되면서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24일 실시된 광주일보와 리서치 부의 여론조사 결과, 문 후보는 80.3%의 지지율을 보인 반면, 박 후보는 14.4%에 머물렀다.

조선일보와 미디어리서치의 여론조사에서도 문 후보는 70.6%, 박 후보는 18.0%를 기록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심상정 “사퇴합니다”

진보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가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의사를 표명하며 대선 후보직에서 사퇴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박근혜, TV토론 직후 본격 선거전

오늘 첫 유세...유신 피해자 명예회복 보상법안 발의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가 26일 TV토론을 갖고 대선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다. 지난 21일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의 야권 단일화 TV토론에 상응하는 차원이지만, 자정을 넘겨 27일부터 공식선거 운동이 시작되기 때문에 선거전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박 후보는 이날 외부 일정을 잡지 않고 하루 종일 토론 준비에 몰두했다.

박 후보는 표를 주는 유권자 앞에서 면접시험을 보는 자세로 임했다. 토론회 명칭도 '국민면접 박근혜'이다. 경기도 일산 킨텍스 임시 스튜디오에서 열리는 토론은 외부 전문가 4명, 일반 시민 3명 등 7명으로 이뤄진 패널이 박 후보에게 질의하는 형식이었다.

애초 '재미있는 토론'을 구상했으나 경제위기를 전면에 내세운 여당 대선 후보로서는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있어 수위를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박 후보는 TV토론 직후 공식선거일(27일)을 맞아 선거운동을 시작한다. 첫 유세는 대전에서 하며 이어 세종시를 찾는 등 충청권에서 첫 선거운동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 후보는 이날 유신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 관련 법안을 공발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시인 김지하씨 “박근혜 지지”

유신시대의 대표적 저항시인으로 활동한 김지하(71)씨가 26일 열린 시국강연회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김씨는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이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연 강연회에 참석해 “시인인 내가 대선과 관련된 연설회에 선 것 자체가 기이하다. 조국의 위기가 나를 이 자리에 비추어”라는 제목의 원고를 읽어 내려가며 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표했다.

김씨는 “이제 여자가 세상일 하는 시대가 왔고 나는 여성들의 현실통

능력을 인정한다”며 “여자에게 현실적인 일을 맡기고 남자는 이를 도와야 하는 때가 왔다”고 밝혔다.

그는 경기도 이천 영산에서 여성노동조합의 회주로 활동했던 이수인을 언급하며 “그 시대에도 여성 이수인이 임금이 된다는 얘기가 있었다”며 “여러분은 박근혜 후보가 이 민주사회의 대통령이 되는 것이 이상해요?”라고 반문했다.

이어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박근혜 후보 이름을 내지 말라는 친구들의 충고가 있었다”며 “그러나 시인 김지하는 어떤 여자를 지지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고 말해 박 후보를 지지함을 밝혔다. /연남뉴스

경남지사 보선 공민배 사퇴

무소속 권영길 후보로 단일화



민주통합당 공민배, 무소속 권영길 경남지사 후보 간 단일화 협상이 26일 공 후보의 사퇴로 권 후보 단일화로 결론났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 측 김부겸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영등포 당사 브리핑에서 “공 후보가 백의종군을 선언하고 권 후보를 단일후보로 지원키로 했다”며 “대선 승리와 도지사 승리를 대의에 헌신한 공 후보의 결단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

동구청장 보선 후보 재산·납세 신고 보니

무소속 양혜령 29억원 최고

노희용·최정원 5억대 재산

12월 1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광주 동구청장 보궐선거 후보로 등록한 새누리당 최정원(63) 후보와 민주통합당 노희용(50) 후보는 각각 5억1000여만원, 5억7000만여원의 재산을 각각 신고했다. 무소속 양혜령(50) 후보는 28억9000만여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최 후보는 본인 명의의 동구 금남로 2가 주택과 나주 공산면 삼가 등 배우자와 모친 명의의 토지와 건물 등 5억7000여 만원을 신고했다. 최 후보는 그러나 본인 채무 1

억9000여만원 등 채무 3억5000만원도 신고해 총 재산은 5억7000여 만원이었다. 최 후보는 최근 5년간 2317여만원의 세금을 냈고, 100여 만원을 체납한 적이 있다.

노 후보는 본인 명의의 북구 일곡동 대지 1필지와 담양 대덕면 발 2필지 등 토지 3억7000여만원의 신고했다. 본인 명의의 일곡동 상가과 배우자 명의의 일곡동 주택 등 건물 3억5600만원도 신고했다. 노 후보는 현금 1억3000만 원(본인 1억원·배우자 3000만원)과 예

금(보험포함) 6200만원을 보유하고 있다.

노 후보는 그러나 5억6000만원의 채무가 있다며 총 재산은 5억7000여만원으로 신고했다. 노 후보는 최근 5년간 세금 5866만원을 냈고, 23만1000원을 체납한 적이 있다.

양 후보는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동구 지산동, 북구 본촌동 대지 3필지 등 토지 5억6000여만원의 신고했다. 또한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와 아파트 상가 등 건물 2억9000여만원도 신고했다.

양 후보는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예금(보험 포함) 20억7000여원을 보유하고 있다. 배우자 명의의 1억2000만원짜리 골프회원권(해남 파인비치)을 가지고 있다. 양 후보는 최근 5년간 세금 3억1000여만원을 냈고, 체납액은 없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문, 조국·이외수·장하준·강금실 등 영입 나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 측은 26일 무소속 안철수 전 후보와의 단일화 성사 이후 대통령 선대위를 구성하기 위해 외부인사 영입에 다시 나섰다. 문 후보 측은 단일화 과정에서 불거진 안 후보 측과의 감정적 앙갚음 해소하기 위해서도 양측 지지층이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외부인사 영입이 절실한 상황이다.

문 후보 측은 안 후보와의 단일화 이전에 접촉했지만 단일화가 이뤄지

면 힘을 보태겠다는 입장을 취하면서 선대위 참여를 고사한 인사들을 중심으로 영입작업을 벌이고 있다.

조국 서울대 교수가 1순위로 거론된다. 문 후보는 조 교수를 새로운정 치위원회 위원장으로 영입하기 위해 수차례 의사를 타진했지만 조 교수가 고사하자 안 전 후보와 공동 구성하는 정치혁신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제안하기도 했다.

단일화 협상 과정에 문, 안 두 후보

의 단일화를 촉구하는 성명을 수차례 낸 소설가 황석영씨를 중심으로 한 문화예술계, 종교계 인사 102명도 접촉 대상이다. 성명에는 문화가 황지우 한승원 구효서 김연수 씨, 영화감독 정영진 송해성 씨, 작가 임옥상 씨, 이 성명에 이름을 올렸다가 나중에 취소한 이외수 씨 역시 문 후보 측이 공을 들이고 있다. 이 씨는 150만명이 넘는 트위터 팔로워를 갖고 있어 주

요 대선주자들이 이 씨를 찾아가 만날 정도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 영향력이 크다.

문 후보 측이 한때 경제민주화위원장으로 염두에 뒀던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 참여정부 법무장관 출신의 강금실 변호사도 거론된다. 백낙축 서울대 명예교수, 함세웅 신부, 김우 한승원 구효서 김연수 씨, 영화감독 정영진 송해성 씨, 작가 임옥상 씨, 이 성명에 이름을 올렸다가 나중에 취소한 이외수 씨 역시 문 후보 측이 공을 들이고 있다. 이 씨는 150만명이 넘는 트위터 팔로워를 갖고 있어 주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신용카드 한도 구매

사용한도만큼 현금으로!

상품권 매입

최고가 매입, 최저가 판매 법인개인 출장가능!

현금필요하신분

3분 이내 즉시해결!

H. 010-2082-6353
TEL. 062)383-6364

성공을 부르는 말하기 기술 http://www.kleader.kr

스피치 리더십 과정

제23기 수강생 모집!!

제3기/나도 명강사가 될 수 있다.
말 잘하게 하는 특별한 방법

어머니 스피치 교실

제 3기 수강생 모집

면접능력향상과정

■대상 : 취업준비생, 직업훈련생, 대학생

사회초년생, 면접준비 없이 나간다는 것은 위험천만 합니다. 본원에서는 학생들의 학과별 다양한 대응분야를 기획·설계하여 다양한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는 활동적 리더십 배양을 목적으로 면접능력향상과정 등 취업캠프를 맞춤 지원합니다.

초·중·고 대학생 등을 위한 맞춤형 스피치교육

스피치교육은 단순히 스피치만 잘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스피치를 잘하게 됨으로써 교육관계에서 리더가 되고 자신감을 갖게 됨으로써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어 성적도 올라가게 되며 성격이 적극적으로 변하는 등 인생이 변하게 됩니다. 스피치 트레이닝을 빨리 할수록 효과가 월등해 집니다.

교육지사·가맹점 모집 중
☎062)222-2255 / HP. 010-9441-7000
한국스피치리더십교육원

경매를 배우고 수익을 원하는 /동호인 모집

1. 모집대상

- 처음으로 경매를 배우실 분
- 경매를 배우고도 수익을 못 내신 분
- 특수 물건과 부실채권에 관심이 있는 분
- 종자돈으로 부자가 되고 싶은 분
- 여유자금으로 부동산에 투자 하실 분

2. 특전(무료)

- 교재/프린트물
- 매월 회식/임장활동 참가
- 교육기간중 1인 1물건 추천
- 평생 교육/권리분석 혜택
- 본사 사무실 수시 이용

3. 교육기간

- 매주 수/금요일 오후 7시~9시
- 3개월 단위로 반복 순환식 스테디

4. 교육내용

- 지분물건 가압입차인등 특수물건
- NPL(부실채권)물건
- 실전사례 중심 스테디

5. 회비

- 현금 일시불 550만원

(주)오천경매 H.010-3605-5000

못 받은돈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 공증문서
- 대여금
- 법원판결문
- 운송료
- 각종채권
- 구상금
- 물품대금
- 공사대금

- 채무자 전국 재산조사 가능
- 채무자 신용조사
- 법인재산조사, 신용조사
- 법원 재판중인 사건 확인

의뢰시 수수료없음

(회수금에 대한 후불제도)

필요에 따라 법무비용은 채권자 부담

"타 신용정보사와 비교 탁월한 회수실적"
"전국 지점으로 전국 소재 파악"
"수시로 의뢰인에게 상황보고"

세일신용정보(주)
전문상담 010-8617-7899